

이번엔 법정싸움…장흥 로하스타운 조성 차질

시행자간 대금 문제 갈등

2차분 토지 매각 절차 중단

입주민 1300세대로 줄이고

조성시기 연장 계획 검토

장흥군 안양면 일대 229만6000㎡에 추진 중인 ‘로하스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간 갈등으로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등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장흥군에 따르면 로하스타운 사업시행자인 랜더버스코리아㈜를 대상으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제출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로하스타운 1단계 2차분 39세대 단독주택 조성공사를 위한 토지 매각 절차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로하스타운은 도시지역 연금세대와 귀농·귀촌자들의 건강 100세 시대 행복한 삶 터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단계 1차 시범지구인 43세대(2만9000㎡)가 완공됐고 현재 1단계 2차분 39세대가 거주할 부지(2만4000㎡) 조성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장흥군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문제 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장흥군 안팎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장흥군으로부터 부지를 넘겨받아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

다는 점에서 2단계 분양 시기·일정 등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로하스타운은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률 저조 등으로 조성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9년까지 로하스타운 내 단독·공동주택 등을 조성, 1500세대가 거주하는 주거공간이 조성돼야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1단계로 조성하려

던 157세대 단독주택 조성 계획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로하스타운 내 들어설 승마장도 부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장흥군은 전체 입주민 규모를 1300세대로 축소하고 조성시기를 오는 2025년까지 미루는 방안을 담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추진중이다.

단지 조성이 계획과 달리 늦춰지면서 일부 입주가 이뤄졌는데도 지선 도로망, 도

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분야에 대한 정비가 미흡, 불편이 적지 않다는 게 지역민들 설명이다.

다만, 로하스타운 내 통합의학박람장은 들어섰고 통합의료병원도 조만간 개원, 진료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로하스타운 조성차질이 없도록 사업시행자를 통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충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에 조성되는 로하스타운 전경. 애초 오는 2019년까지 로하스타운 내 1500세대가 들어서는 단독·공동주택을 조성기로 했지만 오는 2025년까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단계로 조성하려던 157세대 단독주택 조성 계획도 여태껏 43세대만 마무리된 상태다.

〈장흥군 제공〉

장흥 통합의학박람회 20일 개막

7일간 6개관 운영…통합의학센터 진료 시작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가 오는 20일 장흥군 안양면 국제 통합의학 박람회장에서 개막한다.

이번 박람회는 ‘건강한 치유·건강한 삶이 있는 곳’이라는 주제로 7일간 열린다.

현대의학 통합의학과, 한의학 통합의학과, 보완·대체 통합의학과, 건강 100세관, 꿈나무 건강증진관, 의료산

업·특산물관 등 6개관이 운영된다. 약초테마 공원, 건강 강좌, 워터, 건강음식관 등 6개 부대행사장도 마련돼 무료로 검사와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국제 1회, 국내 6회 박람회 개최 경험을 살려 전시 위주보다는 관람객이 직접 체험을 즐기는 참여형 박람회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남도는 전했다. 올해는 박람회장 인근에 준공된 통합의학센터도 박람회와 연계해 예비 진료를 시작한다.

2012년 작광해 사업비 252억원이 들어간 센터는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5년간 위탁·운영한다.

/장흥=김용기기자·충부취재본부장

장흥군 청정해역 갯벌산업특구 지정

바다 생태 복원·생산기반 확충·체험 활성화 사업 추진

장흥군이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정해역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지역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2일 장흥군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가 최근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생태복원사업·생산기반 확충사업·유통 및 체험 활성화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장흥 특량만 해역의 수질은 1~2등급으로 인근 바다보다 우수하고, 퇴적물에 의한 유기오염지표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산(酸)을 사용하지 않는 무산강 양식을 시작하면서 바다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다환경이 좋아지면서 낙지·매생이·미역·키조개 등의 수산물 생산량이 20~30% 늘었다.

‘청정해역’을 수산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흥군은 어업 생산소득이 올해 3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에는 48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정해역이라는 타이틀을 얻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인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충부취재본부장

강진오감통 음악창작소 7080 신나는 막춤



12일 강진군 강진을 강진오감통 음악창작소 실내공연장에서 열린 ‘맞춤형 뮤직토크쇼’. 광주여고 총동문회 이사회 회원 50명이 참여, DJ와 공연가수의 1970~80년대 음악을 즐기며 즐거워하고 있다.

강진군은 강진오감통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지난해부

터 ‘뮤직토크쇼’를 운영중이다. 지금까지 64회에 3000여 명이 다녀가면서 관광객 맞춤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 DJ의 진행으로 대중가요와 클래식, 성악, 국악, 연극 등 관객의 요구에 맞춘 음악과 공연을 진행중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강진군 들녘경영체 육성 10억원 확보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

비 10억원을 확보했다.

강진군이 쌀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역 285개 농가가 내년부터 2년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참여해 쌀 적정 생산, 고품질 친환경 쌀 재배 등 농경 다각화를 추진한다.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과 유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농업 활성화에도 중점 두고 있다.

강진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사업

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들 농가는 600ha 영농지를 경영하며 한우 1천여 마리를 키우는 영농조합법인을 이뤘다.

첨단 장비와 영농기술을 도입해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에 대비해왔다.

군은 사업 참여 농가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은 높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들녘경영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농업의 규모 단지화와 경영체 조직 방향으로 나아가 것”이라며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흥군 사이트 방문자 우드랜드·유치휴양림 가장 많아

장흥군이 13개 관련 온라인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우드랜드와 유치자연휴양림 등 관광 관련 사이트 방문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 대표홈페이지를 비롯, 13개 웹사이트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드랜드가 월평균 페이지뷰(최근 1년 간 월평균 웹페이지를 열어본 횟수) 수가 10만87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치자연휴양림(www.yuchi.or.kr)

은 월 5만9798건의 페이지뷰로 두번째로 많았고 물과학관(ijwater.co.kr)은 4만4027건, 천문과학관(www.jhstar.kr) 4만884건, 문화관광(travel.jangheung.go.kr) 3만3477건 등의 순이었다.

장흥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 기술센터, 과학관, 예술회관 등 업무별 홈페이지는 대표홈페이지로 통합·정비하는 방안 마련하고 장흥물도 접근성·호환성에서 미흡한 점을 파악, 정비기로 했다. /장흥=김용기기자·충부취재본부장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히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10평
- 2012년 신축, 전망 좋음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12억
- 매매 - 7억 8000만원
- 용자 3억 3000만원 포함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목포에서 50분 (쾌속선)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장기투자 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2억+부동산과 교환 가능)

나주,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조정가)

“급 매”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주인직매 010-3605-5000